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므로(?)

효자제일교회 전도사·홍 순관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 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시므로 여호와와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증 제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 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 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시무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매 그가 요셉이 그 옷을 자기 손에 버려 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도다 그가 나를 겁간코자 내게로 들어오기로 내가 크게 소리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 옷을 내게 버려 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 옷을 열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코자 내게로 들어왔기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 옷을 내게 버려 두고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시니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므로 그 제반 사무를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개역, 창세기 39:1~23]

본

문은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억울하게 옥에 갇히는 이야기입니다. 잘 아는 이야기지만 그 속에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야콥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야콥에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지만 야콥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 수단껏 열심히 살다가 마지막에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콥의 생애에서 모든 고난이 끝이 났을 법한데 그에게는 마지막 시련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기까지는 야콥의 시련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야콥의 시련이 완전히 끝나는 것은 요셉은 물론 베냐민마저 포기한 그때에 자유로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양식을 사기 위해서는 베냐민을 데려가야 합니다.”고 아들들이 말을 해도 그를 보내지 않으려고 처절한 몸부림을 치지만 끝내 보내고 맙니다. 그러나 묘하게도 이 이후에 참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 일이 생기기 전에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마지막 남았던 시련이 바로 아들 하나를 잃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형들이 시기해서 팔아 버렸지요. 그렇게 팔려간 요셉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총리가 되는 이 이야기는 거짓말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은혜가 되고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을 비판적으로 보고 이것을 사실로 여기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적어도 이 부분만은 한편의 드라마처럼 재미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요셉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우리가 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당한 고통을 조금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중에 아무리 위대한 자리에 앉았다 할지라도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당했던 고난은 너무나 심한 고난이었습니다.

어쩌면 인생을 포기하고 좌절하고 주저앉고 싶었을 때가 한 두번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갔는지 살펴봅시다.

처음에 형들에게 팔려갔을 때 세상에 형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이 좌절감이 아마 어떤 고통보다 견디기 어려웠을지 모릅니다. 형들이 왜 동생을 팔아버렸지요? 처음에는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시기심 때문이라고 하면 대충 맞습니다만 그때 형들이 “죽여버리자. 죽여버리고 나서 그가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자.”고 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시기심이기도 합니다만 형들이 이런 악독한 마음을 품고 그를 팔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겪었던 가장 고통스러웠던 기억과 요셉의 고통을 비교해 보십시오. IMF가 닥쳐왔을 때에 직장을 잃고 가정적인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들 중에는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버린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요셉이 당했던 고난과 비교해 보면 자신의 고난이 그렇게 큰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요셉이 받았던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어쩌면 인간이 싫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애굽에 팔려가서 종살이를 하게 되었죠. 종살이를 하다가 겨우 살만 해지니까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항변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는 아무런 잘못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했던 노력 때문에 결국 옥에 들어갔습니다. 또 좌절했을 수도 있습니다. 간수의 신임을 받아서 견딜만 했을 때에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주는 바람에 곧 나갈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이 남의 처지를 그렇게 잘 기억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살아 나가서 이걸 잊어버렸습니다. 만 2년이 지났습니다. 혹시라도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내 말대로 살아났으니 나를 기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다리는 2년은 끔찍한 세월이었을 겁니다. 2년을 못 기다리고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장면들을 생각해 보면 요셉이 총리가 되기 전에 겪었던 아픔과 고통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났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에게 유일한 소망이 하나 있다면 이 애굽을 탈출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본문을 읽어보면 요셉이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는 노력이 보이질 않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어서 포기를 한 것일까요?

만약 우리가 요셉의 처지가 되었다면 이 상황에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한가지 보입니다. 영화를 많이 보신 분들은 이 방법이 금방 보일 것 같아요. 어떤 장면이지요? 영화에 잘 나오는 장면이 하나 있지요?

보디발의 아내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를 잘 이용하면 고국으로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보디발의 아내와 특별한 내연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 힘을 이용해서 가끔은 외부로 나갈 수도 있을테고 애굽을 탈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렇게 좋은 기회를 이용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요셉이 이런 혹독한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그가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고향에서 특별한 꿈을 꾸었던 것도 하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었기에 그런 꿈을 꿀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결코 잊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은 9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할 때에 그녀를 따라가는 것이 보디발에게만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그런즉 어찌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를 행하면 이것은 보디발에게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라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 가졌던 생각 중에 아주 중요한 것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입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의 교훈이 ‘코람데오 *Coram Deo*’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라틴어입니다. 우리의 선배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정신으로 살았습니다. 요셉은 이때에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는 의식이 확고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대충대충 해치우면 누구에게 미안합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원만한 생활을 하지 못하고 가정에 문제를 일으켰다면 단순히 부부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범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생각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더 고생하는 길로 갔지만 다른 모든 경우에서도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살다보면 쉽게 출세하거나 때론 별 기회가 가끔 생기기도 합니다. 하나님만 보지 않는다면 큰 돈도 벌 수 있고 잘하면 출세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번만 눈감아 주세요라고 말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갈등이 없다면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갈등이 올 때마다 힘들더라도 힘든 길을 선택하여 가는 것이 길게 보아 오히려 행통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혹독한 시련의 기간을 요셉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 모든 과정을 벗어났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더라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잘 모르니 요셉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39장 본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복 주시고 만사 형통케 하셨더라는 구절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형통케 했다는 것을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 아무런 고통도 어려움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요셉의 경우를 유심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는 것이 그에게 아무런 고통도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제 요셉과 함께 했다고 말합니까?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라고 되어 있지요? 바로 그 앞에 요셉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면 종으로 팔려가지 않게 해주셔야 정상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셨다가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니까 그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셔서 요셉이 거기서 조금 출세합니다. 떨어진 폭이 큼니까 출세한 폭이 큼니까? 떨어진 것은 천리 만리이고 하나님께서 높여 주신 것은 조금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범사에 함께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형편이 나아졌습니다.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것을 뿌리칩니다. 그러자 그가 옥에 갇혔습니다. 또 언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고 했는지 보세요. 2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교라는 표현이 또 나옵니다. 바로 그 앞에 뭐가 있나요.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교’**라고 말합니다. 함께 하시면 옥에 갇히지 않아야지요? 옥에 갇히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또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그 전에 나타나지 않고 꼭 더 이상 벗어날 수 없는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에야 비로소 그와 함께 하셨더라고 말씀하시냐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옥이나 하면 왕의 죄수를 가두는 옥입니다. 시시한 옥이 아니고 한번 잘못 들어가면 평생 헤어날 수 없는 무서운 범죄자만 있는 옥입니다. 어쩌면 더 이상 헤어날 길이 없는, 왕의 특별한 은총이 없으면 빠져 나올 수 없는 옥에 갇혔더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애굽으로 팔려가는 일이나 옥에 갇히는 일이 없어야 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도 애굽에 팔려갔고 그곳에 함께 하셨다가 또 옥에 갇혔고 옥에 갇혔는데 또 그와 함께 하셨더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만 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아무런 어려움도 고통도 생기지 않는다는 생각이 잘못임을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길래 이럴까요? 우리에게 닥쳐오는 사고나 어려움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에게 거의 똑같이 옵니다.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이 닥쳐오는 것을 막으시기도 하겠지만 대부분 똑같이 옵니다. 악인에게나 의인에게 비가 같이 내리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다만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고 인내하며 견디어 나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아무런 고통도 없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란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출세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소원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이 땅에서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살아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 함께 살았던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이 땅의 시각으로 보면 그렇게 행복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서 고생을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위대한 인물이 되었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얼마나 이 땅에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가장 힘들었던 게 뭘까요? 고향을 떠나 혼자서 그것도 외국에서 떠돌이 신세로 살아야 하는 것이 아마 가장 큰 고통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두 번이나 아내를 빼앗길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은 스스로 아내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거짓말 했다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오죽했으면 그랬겠느냐는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들이나 여럿 있었으면 몰라도 의지할 아들 하나 없이 그렇게 떠돌아다니며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많이 받았다고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그가 복의 근원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는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의 생애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런 바보짓은 안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고 할 때 모세가 얼마나 바보짓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달래고, 확신도 주고, 기적을 행하는 능력까지 주었음에도 못 간다고 버티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노를 발하자 혼이 날까봐 할 수 없이 갔습니다. 그런 모세의 말을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얼마나 원망을 했는지 모릅니다. 모세가 민족을 위한 사명감에 불타서, 지도자의 길을 걷고 싶어서 걸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고생길로 들어선 것이죠.

다윗은 어릴 때 들에서 양을 치면서 평화롭게 살았죠. 어느 날 사무엘이라는 선생님이 오셔서 머리에 기름 부으며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다윗에게 왕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그후 얼마 안돼서 다윗은 쫓기기 시작합니다. 사울에게 쫓기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나와 사망의 차이는 한 걸음밖에 안된다.”는 말을 다 했을까요? 더군다나 이웃나라로 망명갔다가 신분이 들통나는 바람에 미치광이 짓을 하며 간신히 빠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백성들의 손에 의해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했습니다. 그런 세월을 십수년 정도 보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세월을 지냈는지 모릅니다. 그가 왕이 되고 부귀영화를 누렸다고 해서 그 고난의 세월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됩니다.

심지어 예수님마저 인간적인 고뇌로 봐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원치 않았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고통을 피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바로 그 기도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모습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랑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들어주십니다라고 자랑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랑치고는 조금 좋은 자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때를 쓰면 기도하는 그 기도를 그대로 들어주시기도 합니다. 그것은 내가 그렇게 성숙하지 못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집의 아이들 보세요. 아이들이 때를 쓰기 시작하면 특히 요즈음은 아이에게 이기는 어른이 없습니다. 아이들의 때를 이겨낸 어른들은 아주 악하거나 아주 독하거나 둘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웬만한 부모는 못 건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기도하는 대로 척척 잘 들어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잘 아는 위대한 신앙인이거나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철없는 어린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만할 때가 되어서도 때를 쓰고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내 뜻을 마구

내세울 때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책망 받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따로 있고 하나님이 이 뜻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나름대로 계획이 있으시면 나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인도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이 닥쳐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떤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그런 섭리하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이 어려운 고난이 왜 자기에게 주어지는지, 내가 뭘 잘못했단 말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항변해 보아도 자기가 고난을 받아야 할 이유를 자기에게서 찾지는 못합니다. 단지 요셉을 통해서 당시의 모든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으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뜻을 갖고 계시는구나라고 믿고 닥쳐오는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자의 삶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만 내버려두시지 왜 가끔 나타나셔서 함께 하시며 그를 형통케하셨다고 할까요? 요셉이 이 고난을 더 이상 견딜 수 없고 자기 힘으로 버틸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시며 격려하신 것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했지만 다윗이 쫓겨다닐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많이 도와주시지 않았습니까. 한번은 어떤 성에서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데 다른 지방에 블레셋 족속들이 쳐들어왔다는 소문을 듣고 자기도 쫓기는 판에 “하나님 가서 저 성을 구할까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가서 도와주라고 합니다. 가서 도와주고 그 성을 지켜냈는데 들리는 소문에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과연 이 성으로 올까요?” 올 것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이 성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내 줄까요?” 하나님께서 내줄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은 그 성에 더 머물러 있지 못하고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를 조금 도와주어야 하는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울을 못 오게 한다거나 이 백성들이 자기의 편이 되게 한다거나 그런 방법이 있는데 묻는 대로 대답은 잘 해주시면서 다윗의 고통을 즉시 없애버리는 방식으로 그를 도와주시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지 않는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낙심하고 포기해 버릴 때 쫓으면 어떤 방법으로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내 사랑하는 자녀가 이 정도는 이겨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팔려갔을 때 하필이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것이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로 세우실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옥에 갇히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만약에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 아니고 다른 감옥이었다면 왕과 접촉하게 되거나 왕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 오히려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요셉으로서는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요셉의 삶 속에서 조금씩 자신의 뜻대로 간섭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삶 속에서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어떤 환경에서든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면 출세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까? 아니면 꿈을 잘 꾸어야 된다는 교훈을 얻습니까?

요셉이 나중에 형통한 자가 되어 총리가 되고 출세하게 된 원인을 요셉에게서 찾으려면 잘못입니다. 요셉에게서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 계획을 어떻게 인도해 가셨느냐 하는 것이 성경을 바르게 보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위에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여러가지 어려움들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요셉보다 더 큰 아픔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요셉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믿으시면 됩니다.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견디기 어려운 아픔 속에 있

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만큼 성숙된 신앙인이 되기를 하나님이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월이 많이 흐른 다음에 지금 겪고 있는 이 아픔을 돌아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때 이런 아픔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지금의 아픔을 오히려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고통을 당하면 재수없이 왜 하필 나만 이러느냐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계신다고 믿는 것은 훌륭한 믿음입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에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음을 믿고 인내하는 분은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하시는 분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입문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집사님 중에 몸이 불편해서 고생하시는 것을 옆에서 보기가 힘이 들어서 “집사님 그렇게 아파서 어떡하지요?”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무슨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시비를 거십니까?”라고 기도한답니다. 그 분의 말을 들으면서 이 분 믿음이 정말 보통이 아니구나 하면서 공감을 표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굳게 믿으시고, 인내하시며 승리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